

동방정교회와신약성경기독교사이의모순

소개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담겨 있는데, 각 편지는 역사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시대적 상황에 따른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형론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 중에서도 페르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12-17) 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지만 세속적인 동맹, 특히 발람파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이어지는 교리) 와 니콜라당파 (평신도보다 성직자의 위계 질서) 와 같은 교리에 매몰되었던 기독교의 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사적으로 페르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 사탄의 보좌 " 는 제우스 제단이나 로마 황제 숭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 권력과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 교리를 사용한 기존 분석을 바탕으로) 동방 정교회에 이를 적용해 보면, 고대 신앙의 훌륭한 보존과 신약 성경의 순수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들, 예를 들어 국가 권력과 통합 (비잔틴 황제 교황주의), 위계 구조, 그리고 피임과 이혼과 같은 현대적 허용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한 도덕적 타협으로 간주됨) 사이의 인식된 긴장감이 부각됩니다. 이서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잘못된 교리에 대한 관용을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승리자들에게 숨겨진 만나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유형론은 교리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교회의 역사적 제국주의 및 비성경적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정교회 " 라는 용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통, 전례, 교리를 통해 사도들과의 끊임 없는 연속성을 주장하는 동방 정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맥락에서 흔히 사용되는 " 신약성서 기독교 " 는 일반적으로 형식화된 성례나 숭배 관습과 같은 후대의 발전 없이 오로지 성경에만 기반을 둔 기독교 형태를 의미합니다. 비판론자들은 특정 정교회의 신앙과 관습이 권위, 구원, 예배, 인간 본성에 대한 신약성서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교회 신학자들과 변증가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사도적 전통과 교부들 (아타나시우스, 바실리우스 대제, 다마스쿠스의 요한과 같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의 저술을 통해 해석된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래에서는 성경과 정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주요 모순들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적 인 비판과 정교회의 반박을 토대로 합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은 정교회의 근간을 이루므로, 해석은 다양하지만 정교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가능한 한 1 차 사료를 통해 입증되는 내

용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1. 전통의 권위 vs. 오직 성경의 권위

- 비판적 관점의 모순 주장: 정통기독교는 "성스러운 전통"(공의회, 교부들의 저술, 전례, 성상 등)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간주하는데, 비판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최고 권위를 무효화하고 인간이 만든 교리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추가적인 무오한 자료가 필요 없다고 묘사하는 것과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 후서 3 장 16-17 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종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성경 외의 전통을 불필요하게 만들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마가복음 7 장 13 절: "너희는 너희가 전해 내려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한다")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통 반박: 전통은 성경과 분리되거나 성경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포괄합니다. 성경 자체가 구두와 서면으로 전해진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 장 15 절은 "말로든 편지로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라" 고 권면합니다. 바실리오스 대제(서기 330~379 년경)와 같은 교부들은 그의 저서 『성령에 관하여』(27 장)에서 기록되지 않은 전통(예: 십자가 표징)도 성경과 동등한 사도적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전통들이 교리적 변질을 막기 위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정통 문헌들은 교회가 전통(예: 서기 397 년 카르타고 공의회와 같은)을 통해 신약 성경 정경을 편찬했기 때문에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통 문헌들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교회의 맥락 없이 스스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은혜와의 협력을 통한 구원 vs.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구원

- 비판적 관점의 모순 주장: 정통 신앙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협력주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르치며, 여기에는 성례나 금욕적 수행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어 궁극적으로 "신성화"(테오시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신약 성경의 강조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에베소서 2 장 8-9 절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비판자들은 로마서 3 장 28 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

라 ") 을근거로정통신앙이칭의 (순간적인의롭게됨의선언) 와성화 (지속적인성장) 를혼동하여인간의노력을더함으로써영혼을파멸로이끌수있다고주장합니다.

- 정통파반박: 구원은은혜로말미암지만, 믿음은능동적이고협력적인것입니다. 성경은믿음과행위를 분리하지않고통합하고있습니다. 야고보서 2 장 24 절은 " 사람이행함으로의롭다함을받고 믿음만으로의롭다함을받지아니하느니라 " 라고하고, 26 절은 " 영혼없는몸이죽은것과같이행함이없는믿음도죽은것이니라 " 라고덧붙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서기 296~373 년경) 와같은교부들은그의저서 『성육신에관하여』 에서신화 (神化) 를그리스도의성육신을통해인류가회복되는것으로설명하며, 이는공로에의한것이아니라신성한생명에참여하는것이라고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 장 4 절: " 너희가신성에참여하게하려함이라 "). 정통파는행위는은혜의열매이지공로가아니라고명확히하고, 빌립보서 2 장 12-13 절 (" 두려움과떨림으로너희구원을이루라이는너희안에서일하시는분이하나님이시니라 ") 을인용하여신과인간의협력을보여줍니다. 그들은 " 믿음만으로 " 라는주장은성경의모든증언을무시하고올법폐기론 (무법론) 의위험을내포한다고주장합니다.

3. 성상과성인숭배대우상숭배금지

- 비판적관점의모순주장: 성인이나마리아의성상에절하거나입맞추거나기도하는것과같은정통적인관습은우상숭배또는숭배로여겨지며, 이는신약성경에그러한관습이없고구약성경에서새긴형상을금지하는명령과모순됩니다. 신약성경에서인용된출애굽기 20 장 4-5 절은 " 너는너를위하여우상을만들지말라... 너는그것들에게절하거나그것들을경배하지말라 " 고경고합니다. 비판자들은 디모데전서 2 장 5 절 (" 하나님은한분이시요하나님과사람사이에중보자도한분이시니곧사람으로오신그리스도예수시라 ") 을예로들며, 성인을중보자로부르는것에대한신약성경의선례가없다고지적합니다.
- 정통반박: 공경 (dulia) 은성인들을그리스도의몸의지체로존중하는것이며, 하나님께만드리는예배 (latría) 와는구별됩니다. 또한성상은신성을비추는창이지우상이아닙니다. 성경은공경을묘사하고있는데, 요한계시록 5 장 8 절 (장로들이성도들의기도를드리는장면) 과히브리서 12 장 1 절 (증인들의구름) 이그예입니다. 교부다마스쿠스의요한 (서기 675~749 년경) 은저서 『신성한이미지에대하여』 에서성상과괴주의에맞서성상을옹호하며성육신을인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그리스도안에서눈에보이게되셨기때문에 (요한복음 1 장 14 절), 그분을묘사하는것은그분의인성을존중하는것이라는것입니다. 정통파는언약궤위의그룹천사 (출애굽기 25 장 18-22 절) 와같은구약성경의선례를제시하며, 신약성경은그러한상징을폐지하는것이아니라완성한다고주장합니다. 성인들에게기도한다는것은세상의소원을들어주는것처럼그들의중재를구하는것을의미합니다 (야고보서 5:16: " 서로

를위하여기도하십시오 ").

4. 원죄와인간본성에대한관점

- 비판적관점의모순주장: 정통신학은 " 원죄 "(인류는아담으로부터필멸성과죄짓는성향을물려받았지만, 개인적인죄책감은물려받지않았다) 를가르치며, 전적타락이나전가된죄책감을부정합니다. 이는신약성경에서묘사하는인류의속박을완화하고, 그리스도의속죄의필요성을약화시킨다는비판을받습니다. 로마서 5 장 12 절과 18 절은 " 한사람으로말미암아죄가세상에들어오고죄로말미암아사망이들어왔으니... 한범죄의결과로모든사람이정죄를받으리라 " 고말합니다.
- 정통파반박: 타락은죽음과부패를가져왔지만, 죄는개인적인것이다 (에스겔 18:20: " 죄를짓는자는죽을것이다 "). 교부이레네우스 (기원전 130 년경 ~202 년) 는 『이단반박』 에서아담의죄는인류에게자동적인저주가아니라연약함을감염시킨것이라고설명하며, 그리스도께서이를치유하시기위해다시오셨다는점을강조한다. 정통파는시편 51:5(" 나는태어날때부터죄인이었습니다 ") 을교리적죄가아닌시적인표현으로해석하며, 자신들의견해가태어날때부터보편적인정죄를전제로하지않고회개를촉구하는신약성경의가르침과일치한다고주장한다.

5. 성례 (예: 성찬례와고해성사) 의본질적의미 vs. 상징적의미

- 주장되는모순 (비판자의견해): 정통파는성찬례를그리스도의실제몸과피 (반복적인희생제사) 로보고, 사제에게고해성사를통해용서를구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 이는신약성경에서제시하는단한번의희생과하나님께직접나아갈수있는길과모순됩니다. 히브리서 10 장 10 절과 14 절은 " 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몸의단한번의희생으로거룩하게되었습니다... 그분은단한번의희생으로거룩하게되는자들을영원히온전하게하셨습니다." 라고말합니다. 요한일서 1 장 9 절은하나님께직접고해성사할수있음을약속합니다.
- 정통파반박: 성찬례는그리스도의영원한희생에참여하는것이지 (히브리서 13:8: " 예수그리스도는어제나오늘이나영원히동일하시다 "), 요한복음 6:53-56(" 너희가인자의살을먹고그의피를마시지않으면너희속에생명이없느니라 ") 에나오는재희생이아닙니다. 안티오키아의교부이그나티우스 (서기 35 년경 ~107 년경) 는스미르나인들에게보낸편지에서성찬례를 " 불멸의약 " 이라고불렀습니다. 사제에게고백하는것은야고보서 5:16 과요한복음 20:23(그리스도께서사도들에게죄를용서할권세를주셨음) 을성취하는것입니다. 정통교회는성례를상징적인것이아니라온혜가충만한것으로보며, 이는초기교회의관습과일맥상통합니다.

6. 성경정경 (외경포함)

- 주장되는모순 (비판론자의견해): 정통성경에는신약성경에서권위있는경전으로인용되지않고교리적 오류 (예: 마카베오서 2 서 12 장에나오는죽은자를위한기도) 를포함하고있다고주장되는토빗서와 마카베오서 (일부견해에서는외경) 와같은책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예수께서사용하신히브리 성경을넘어정경을확장하는것으로, 신약성경에서암시하는 39 권의구약성경과모순됩니다.
- 정통파반박: 70 인역 (이책들을포함한그리스어구약성경) 은예수와사도들이사용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35 는마카베오서 2 서 7 장을언급합니다). 아타나시우스와같은교부들은그의제 39 차축제 서한 (서기 367 년) 에서이책들을교훈적인책으로언급했고, 공의회에서도이를인정했습니다. 정통 파는이책들을삭제한것은새로운해석이며, 이책들은중보기도와같은교리를뒷받침한다고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8:3-4 와일치).

요약하자면, 이러한 "모순"은종중서로다른해석학적관점에서비롯됩니다. 성경만을강조하는관점은개인적해석을우선시하는반면, 정교회는교부들과성령의인도를받는공동체적전통을강조합니다. 정교회자료들은자신들의관행이신약성경에근거한기독교를구현한다고주장하는반면, 비판론자들은사도시대이후에덧붙여진요소들이라고봅니다. 더깊이탐구하려면필로칼리아 (교부들의저술) 와같은원문을참고 하십시오. 정교회맥락에서옹호되는역사학연구는제 2 성전시대유대교와초기교회의관행을연구함으로써 이러한모순을명확히할수있습니다.